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음 5월 19일) 제 15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더민주, 협치정신 살려라”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에 도내 정치권 들쭉

국민의당 “의회직 1~2석은 우리당이 가는 상생 화합하는 의회 조성해야” 내주 본회의 결과 주목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면서 도내 정치권이 들쭉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하반기 의회직 선출에서 일방통행할 것으로 보여 상생회의와는 거리가 멀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당간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협치(協治)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협치 정치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용호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일각에서 탈당이나 선거법 위반 고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모두가 화합하는 도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어 “23일 오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8명 모두 후보로 나선다는 말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라고 본다. 이날 3~4명의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지 않겠느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한쪽 진영으로 쏠리는 정치의 발전이 없다. 지난 총선에서

도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다 같은 동료들이었던 만큼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놓고 비관 목소리가 나오는 데엔 그동안 소수정당과 여성 의원 배려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9대 이계숙 전, 도의원과 10대 허남주 도의원이 오버랩된다.

이들은 여성들이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그렇다고 의원 역할에서 밀려나진 않았다.

지금처럼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기획, 예산, 인사 등을 소관하는 도의회 핵심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속됐었다.

또 10대 이현숙(무소속) 의원 역시 상임위 선출에서 의원들로부터 최대한 배려를 받아 환경복지위원회에 속해 활동 중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화합해야 한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돌아서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냉정한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이번처럼 더민주당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다고 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여겨진

다. 모든 건 도민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봤을때 더민주의 명분이 약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최종 결과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의회 원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의 경우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군산시의회의 경우 전체 24명 의원중 국민의당 15명, 더민주 5명, 무소속 2명, 새누리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제시의회의 역시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국민의당 11명, 무소속 1명, 비례 2명으로 짜여져 있다.

결국, 힘의 논리로 간다면 도의회에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번 의회직 선출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내 정가 한 관계자는 “힘의 논리라면 갈등은 깊어질수 밖에 없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싸움이 끝지 않는 양을 짓는다. 최소 한석 정도는 양보해서 협치로 가는데 더민주를 더 높이 평가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후보를 보면 6명 중 5명이 초선이다. 반면에 국민의당 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한차례도 맡지 않은 의원이 있다. 지금이라도 오는 28일 원구성 이전에 양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22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와 남원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교육부 앞에서 항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 “횡령·비리 설립자 옹호 행태 ‘안될말’”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교육부서 항의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교육부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22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구)재단 측 서남대 의과대학 폐교방안 제출 언론보도에 대해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교육부 앞에서 항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항의 결의대회는 교육부에 남원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구 재단 측의 학교 운영참여를 배제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갖은 날씨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남대 정상화를 호

소했다.

공동대책위는 “교육부에 임시이사회에서 제출된 정상화 계획서는 몇 차례 보완 요구를 하면서 구)재단 측 자체 자구계획안은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 보도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며 “사학 비리를 바로 잡고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횡령과 비리로 문체된 설립자를 옹호하는 행태는 정부의 대외 구조개혁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구 재단 정상

화 방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교육부 처사는 용납할 수 없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여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타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지하기 위해 서남대 의대를 폐교하는 수순이라는 정치적 계략이나 음모설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7일 교육부가 구 재단 측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를 구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민형기자·남원=유영철기자

## 전주시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효과 ‘톡톡’

전주시가 탄소(CO2)포인트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1만6,992가구에 대해 1억3,900만원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들 탄소포인트제 실천 가구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5% 이상 절약했으며, 이를 이산화탄소 감소량으로 환산할 경우 6,950톤에 달한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나타난 성과로 소나무 139만 그루를 심은 효과에 해

당된다.

시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컨설팅사업과 가정방문 에너지진단, 2016전주에너지독립학교 협약, 공공기관에 탄소포인트제 홍보와 참여유도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건물)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해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산정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750원

~1만7,500원의 현금 및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불필요한 전등 끄기 및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시민 의식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회원가입하거나, 전주시 환경과 기후변화팀(1644-8891, 063-281-2332),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새만금 농업비점포럼 오늘 창립 본격 활동

새만금 농업비점오염 저감기법 개발 연구단(단장 윤춘경)이 23일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새만금농업비점포럼 창립포럼을 개최한다.

새만금 농업비점오염 저감기법 개발연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과 함께 전국 지자체, NGO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 ‘농업비점관리 거버넌스구축 사업 모델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연구단은 새만금유역 농업비점관리 거버넌스의 지속을 위한 포럼구성을 위해 새만금농업비점포럼을 창립,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비점오염은 사무실, 가정 등 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오염이 아니라 비가 올 때 논, 밭, 도로, 산림 등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데서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로 농약, 비료, 분뇨, 농촌소각쓰레기 등을 말한다. /김영재 기자

## ▶ 매일 INDEX

2면 도내 육아휴직 사용자 절반 퇴직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가 사용 인원이 감소추세인 반면 전북 지역 출산 등을 위한 휴직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면 전주시, ‘드론’ 사업유치 본격화

전주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유치에 나선다.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The 20th Muju Firefly Festival

2016. 8. 27(토)~9. 4(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반디랜드 반딧불 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
- 문의 063)320-5003-17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8. 22일 - 8월 30일)